FIFA U-20월드컵 성공 개최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대폭정비

98억원 투입 최적의 경기 · 관람 여건 마련

전주시가 전주월드컵경기장 시설 개선을 위한 사업비 확보로 내년 5월 열리는 FIFA U-20월드컵을 성공적으로 치러낼 수 있는 발판을 다졌다.

전주시는 내년 5월 20일 전주에서 개막하는 'FIFA U-20 World Cup Korea Rep. 2017' 대회의 성공 개최를 위해 총 사업비 116억을 들여 전주월드컵경기장을 대대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사업을 본격 추진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특히 2016년도 1회 추경예산에 국비와 도비가 포함된 시설정비 소요 예산 98억원을 확보, 선수들이 최적의 환경에서 경기를 펼치고 관람객들의 편의를 높이기 위한 각종 시설 정비 사업이 차질 없이 추진될 전망이다.

시는 우선 올 해 국가예산 공모사업비 9억3000만원과 전라북도 지원금 15억원을 포함한 98억원을 들여 FIFA 시설기준 이상의 전광판 교체, 선수들의 경기력 향상을 위한 천연잔디 교체, FIFA 야간경기 시설기준을 맞추는 필드조명 보강, 경기장 음향설비 개선 공사를 실시할 계획이다. 또, 선수단 대기실 및 운영사무실 리모델링, 관중석 진입 데크 개선사업, 관중 피난 안전시설 설치 사업 등을 차질 없이 추진할 방침이다.

이를 통해 총 좌석 4만2578석의 축구전용구장으로 지난 2002년 한일월드컵 개최를 위해 건설된 전주월드컵경기장은 그간 낡고 손상된 시설을 보수해 최적의 환경에서 축구경기를 관람할 수 있는 경기장으로 되살아날 전망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20세 이하 월드컵 개최도시로 선정된 이후 기획지원, 홍보, 시설 등 3개 팀으로 구성된 월드컵추진단을 구성하는 등 차질 없는 대회 준비에 힘써왔다.

전주시 U-20월드컵추진단 관계자는 "전주시가 대한민국 대표 축구도시로 인정받고 있는 만큼 전 세계 축구팬들이 전주를 기억할 수 있는 성공적인 대회를 만들겠다"며 "최상의 시설에서 최고의 대회가 될 수 있도록 시설 개선 등에 모든 열정을 쏟아 부을 것"이라고 밝혔다.

한편 '2017 FIFA U-20 월드컵' 대회는 내년 5월 20일부터 6월 11일까지 6개 대륙 24개국이 참가해 전주를 비롯해 수원, 인천, 천안, 대전, 서귀포에서 52경기가 열린다. 전주에서는 개막전을 포함 총 9경기가 열리고, 특히 한국 대표팀 경기는 개막전 포함 최소 2경기에서 많게는 4경기까지 열릴 예정이다. /김영재 기자

'태초의 먹거리' 제145회 전주시 열린시민강좌가 28일 전주시청 강당에서 충남대학교 이계호 교수의 '태초의 먹거리'를 주제로 열렸다.

남원 양계장서 화재 발생
병아리 1만5000마리 소사

28일 오전 3시33분께 남원시 보절면 진기리의 변모(51)씨의 양계장에서 화재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에 따르면 이 불로 4000㎡의 양계장 4개동과 관리동 일부가 불에 타고, 사육하고 있던 병아리 1만5000여 마리가 죽어 4500만원 상당의 재산피해가 발생했다.

경찰과 소방당국은 정확한 화재원인을 조사 중이다. /안진수 기자

개복숭아 훔친 일당 덜미

익산경찰서는 28일 남의 텃밭에 들어가 복숭아를 손으로 따 훔쳐간 혐의(절도)로 A(60)씨 등 3명을 불구속 입건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지난 12일 오후 1시30분께 익산시 왕궁면 B(37)씨의 텃밭에서 개복숭아 약 15kg(10만원 상당)을 손으로 따 가져간 혐의를 받고 있다.

조사결과 이들은 개복숭아가 기관지에 좋다는 말을 듣고 우발적으로 개복숭아를 훔친 것으로 드러났다.

경찰조사에서 A씨는 "평소 담배를 피워 기관지가 좋지 않아서 약으로 쓰려고 개복숭아를 땄다"고 진술했다. /안진수 기자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전주시, 해피하우스 서비스지역 확대

15개동에서 19개동으로

전주시가 공동주택에 비해 관리의 손길이 닿기 어려운 단독주택에 주거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해피하우스 서비스 대상지역을 확대키로 했다.

전주시는 단독주택 성능향상 및 주민공동체 복원을 위한 해피하우스 서비스지역이 기존 4개 센터 15개동에서 내달 1일부터 4개 센터 19개동으로 확대 운영한다고 28일 밝혔다.

해피하우스 추가 서비스 대상지역은 중앙동과 호성동, 송천1·2동 등 4개동이다.

해피하우스센터는 기초생활수급자와 차상위 계층, 전국평균소득 이하의 저소득층을 대상으로 주택유지관리, 에너지 효율개선, 주거복지서비스 업무를 추진하는 시설로, 현재 전주지역에는 노송센터와 완산센터, 인후센터, 팔복센터 등 4개 센터에서 노송동과 완산동, 인후1·2동, 덕진동 등 15개동에 대한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시는 원도심 주변의 주택재개발사업 지연과 주택 재개발예정구역에서 해제되는 곳이 속출해 기존 노후주택에 대한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한 중앙동 등 4개 지역에 대해 해피하우스 서비스를 확대 운영, 원도심을 보존하고 공동체 활성화를 추진할 예정이다.

이에 앞서 시는 지난 2009년 국토해양부 시범사업에 전국 최초로 선정됨에 따라 2010년부터 인후동에 해피하우스센터를 개소해 서비스를 제공해 왔다. /김영재 기자

'내 마음의 신호등' 지키세요

전주보건소, 정신건강 순회상담센터 운영

전주시가 순회상담 등을 통해 정신질환에 대한 시민들의 인식 개선과 정신건강 증진에 앞장서고 있다. 전주시보건소(소장 김경숙)는 시민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내 마음의 신호등' 순회상담센터를 지속적으로 운영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정신건강 순회상담센터는 전주시민 대상 심리검사(우울, 스트레스, 지각된 사고 등)를 진행한 후, 그 결과에 따라 정신 건강상담을 진행하는 방식으로 진행된다. 검사 결과 고위험군 판정 시에는 정신건강의학과 전공의 심층 상담 및 정신보건 관련 서비스도 제공된다.

이와 관련 보건소는 이날 전북대학교병원을 이용하는 보호자 및 환자 등 전주시민을 대상으로 순회상담센터를 진행하는 등 올해 8회에 걸친 프로그램 운영으로 170명에게 상담 및 검사를 제공했다.

정신건강 순회상담센터 '내 마음의 신호등' 프로그램에는 정신질환에 대한 편견과 잘못된 인식을 개선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기 위해 전북대학병원, 마음사랑병원, 신세계병원, 미래병원 등 정신보건 관련 유관기관들이 함께 진행되며, 정신건강에 관심 있는 전주시민이면 누구나 참여 할 수 있다.

순회상담에 참여한 김모(49)씨는 "답답한 마음이 있었는데 심리검사도 하고 상담도 받으니 마음이 훨씬 가벼워진 느낌이다"며 "앞으로 나처럼 무심코 넘기거나 가볍게 여기는 사람들을 위해 이 사업이 확장되었으면 좋겠다"라며 만족감을 나타냈다.

김경숙 전주시보건소장은 "시민들이 정신질환에 대한 올바른 인식을 확립하고 정신건강을 증진시키는데 내 마음의 신호등 사업이 초석이 되길 바란다"며 "급격한 사회경제적 변화로 정신적 질환을 호소하는 사람들이 증가하고 있는 요즘, 전주시정신건강증진센터의 역할이 더욱 중요해 질 것"이라고 말했다. /김영재 기자

전주지검, 선거법위반 수사중 의원 7명 "당락결정 혐의 없어"

'허위사실 공표' 가장 많아

제20대 총선에서 당선된 도내 국회의원 7명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검찰 수사를 받고 있다.

전주지검은 제20대 총선과 관련해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국회의원 당선인 7명을 수사하고 있다고 28일 밝혔다.

검찰은 지난 4·13 국회의원 선거와 관련 188명을 선거사업으로 입건하고, 이중 58명(구속기소 13명)을 불구속 기소하고, 11명은 불기소 처분, 1명은 타청으로 이송했다. 또, 118명에 대해서는 조사를 진행 중이다.

선거범죄 유형별로는 흑색선전사범이 66명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금품선거사범 61명, 기타 부정선거운동사범 35명, 폭력선거사범 15명, 불법선전사범 9명 등으로 나타났다.

검찰 수사를 받고 있는 국회의원 당선인 7명에 대한 수사에서 현재까지는 당락을 결정할 만한 범죄 혐의는 확인되지 않은 것으로 알려졌다.

이에 앞서 전북경찰은 제20대 국회의원 선거에서 불법 행위를 한 선거사범 230명(147건)을 적발해 1명을 구속하고, 65명을 불구속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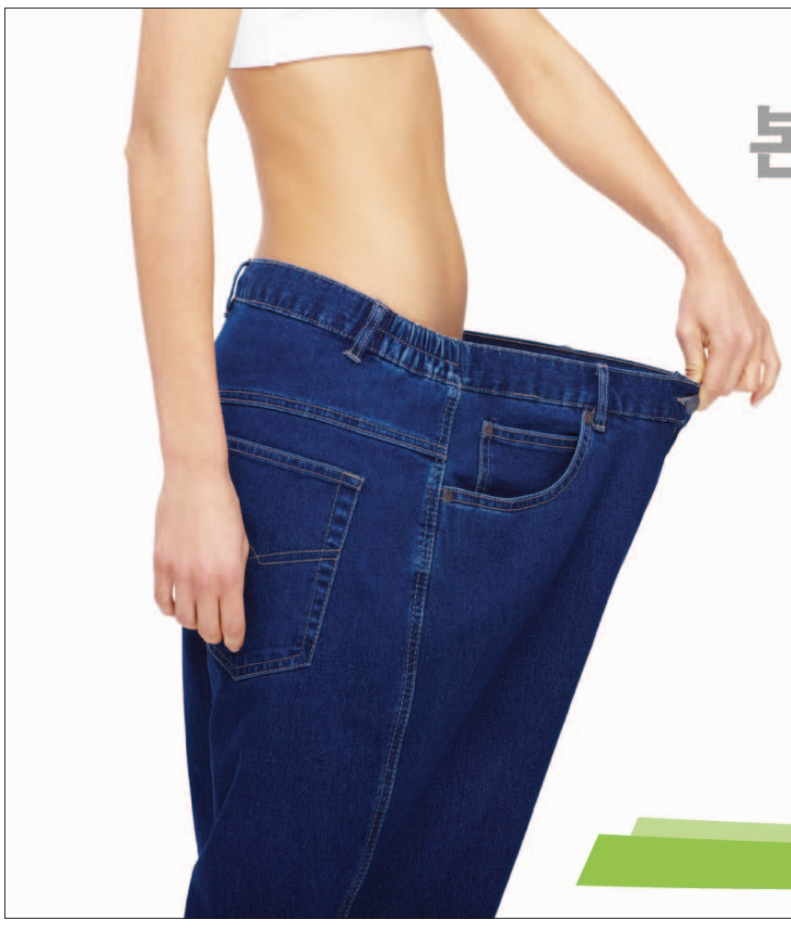
경찰은 또 국회의원 당선인 1명을 비롯해 총 17명에 대해 수사를 벌이고 있다.

전북경찰청은 4·13 국회의원 선거에 앞서 지난 2월 1일부터 도내 16개 경찰관서에 선거사범 수사상황실을 설치, 수사전담반을 178명으로 증원하는 등 본격적인 단속체제에 돌입했다.

경찰은 신속하고 효율적 대응을 위해 24시간 신속 대응 시스템을 가동, 불법 선서사범을 집중적으로 추적해 왔다.

경찰의 선거사법 집중단속으로 제20대 국회의원선거에서 적발된 선거사범은 제19대 선거에 183명(84건)비해 25.6%(47명) 증가했다.

경찰에 적발된 전북지역 선거사범을 유형별로 살펴보면 허위사실 공표가 79명으로 가장 많았고, 금품 및 향응제공 32명, 인쇄물 배부 29명으로 뒤를 이었다. /박용주 기자


본인이 뚱뚱 하다고 생각하시면
몇 kg 정도 를 빼고 싶으세요?
뱃살, 내장지방, 체지방을 요요현상 없이
귀하가 원하는 만큼 쏘옥 뺄수 있습니다
효소다이어트, 해독 프로그램 전문
상담전화: 010-3655-9009
블로그: http://kangsb1959.blog.me
메일: ndtherapy119@gmail.com